

주암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발전방안*

이 기 응** · 박 지 만***

Developing Strategies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Around the Chuam Dam

Lee, Ki-Woong · Park, Jee-Ma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fact-analysis of environmental friendly farm households around the Chuam Dam through the sample survey, 2) the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EPA on the assumption that is the conservation of Chuam Dam's water qualit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omes from 75 sample farm households. The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EPA around Chuam Dam was found out that the efficiency measure of land utilization around Chuam Dam, producing of high quality and safety agricultural products, promoting of the EPA connected with tourist agriculture, improving of the EPA products and supporting of price and income. In conclusion, there must be strategic measures to increase the income of environmental friendly farmers and to conserve the Chuam Dam's water quality.

Key words :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Chuam Dam, farmer income, conservation of water quality, land utilization, marketing system

I. 서 론

전국에는 홍수조절 및 상수원으로서의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팔당댐, 주암댐 등이 건설되어 있다. 이러한 다목적 댐들의 건설은 홍수조절과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2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대표저자,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특히 주암댐 주변지역은 안개가 많은 상습지역으로 작물에 병해충이 서식하여 작물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과수원에는 흑병, 적병 등이, 벼에는 이화명충, 도열병 등이, 밭에는 탄저병을 일으키는 해충, 진딧물, 백라크 등이 일반지역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농약 살포량도 더 많아지고 있다(황병순, 1996).

또한 주암댐의 준공당시 주변의 도립공원 등을 연계시킨 관광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위락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댐 주변 주민들은 물론 이 지역농가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안개 등으로 인하여 영농종사에 많은 고충만 뒤따르고 있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농업발전 차원의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업개발 방향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맑은 물 보존을 전제로 하여 댐을 살리면서 댐 주변지역의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최근 국제기구에서도 환경 관련 논의가 선언적인 것에서 보다 강한 집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친환경농업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¹⁾ 또한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농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지는 입지상의 비교 유리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그리고 지방차원에서 작목의 선택과 관련부문의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댐 주변지역의 개발방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지구기상의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장기적,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은 많이 이루어져 댐 주변 생태계나 기상 및 수질오염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다목적 댐 주변의 주민 소득증대 연구방면에는 거의 없었다. 설령 선행연구가 있어도 평면적 분석 및 당위성 나열에 그치고, 지역농업 발전 차원의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업개발방향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주암댐 주변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역주민에게 생활상의 제약만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친환경농업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검토 및 현지 농가조사를 병행하였으며, 현지조사는 주암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자료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의 객관적인 의사가 도출되도록 해당 조사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및 행정기관의 협조 하에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댐 주변의 환경농업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우리 농업도 1960년대에 주도되어 온 주곡위주의 양곡증산정책으로 농업생산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1980년대 이후 증산의 논리는 환경과 소비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적 증산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가 이제까지 농업경쟁력을 재는 중요한 척도였다면 앞으로는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농업경쟁력을 가늠하는 또 다른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II. 친환경농업 실태분석

1. 조사대상 지역의 일반적 현황

조사지역인 주암댐 주변지역(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상사면 일원)은 전남 순천시내에서 승주읍은 18.8km, 주암면 36.7km, 송광면 36.4km, 외서면 27.3km, 상사면 8.1km 떨어진 순천시 서부지역에 위치하며 옛 승주군의 일부였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 복합형태로 순천시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지역의 토지 전체면적은 2003년 7월말 현재 39,434ha이고, 인구는 16,477명이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한 편이지만 산간지역은 겨울이 오면 상당한 눈과 강풍이 불며, 여름에는 북서풍이 많이 분다. 강우량은 농업용수에 적합한 정도여서 농업의 적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해동(解冬)이 서울에 비하여 15일 정도 빨라 고등원예재배의 적지이다. 천기일수를 보면 흐린 날이 맑은 날보다 많은 편으로 댐 축조이후 안개일수가 86일에서 106일로 20일 증가했고 특히 안개시간은 466시간에서 575시간으로 109시간이나 길게 나타나고 있다.

산악이 중첩하여 별로 큰 평야는 없으나 농토가 비옥하여 예로부터 미맥의 주산지일 뿐 아니라 고등채소재배를 비롯하여 잠업, 축산업이 활발하다.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옛부터 인심이 순후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주변에 승보사찰 송광사와 태고총림 선암사를 동서에 안고 있는 조계산과 옛 선조들의 주거생활을 한 눈에 보고 배울 수 있는 고인돌공원, 전국 유일의 살아 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등 각종 문화, 유적지가 산재해 있어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도·농통합 등 지자체실시와 남도음식대축제, 대학생 품물놀이 등 관광이벤트사업으로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탐방객수가 큰 증가폭을 보이며 인근 관광지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암댐의 위치는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와 구산리간의 협곡으로서 섬진강 본류와 합류점인 압곡리에서 약 25km 상류인 보성강에 위치하고 있다. 주암댐 유역은 400~900m의 협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형은 경사가 비교적 심한 편이다. 유효저수량은 707백만톤(상사 조절지댐 포함)으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등으로 총 118만톤/일과 농업용수 13만톤/일, 하천유지용수 12.1만톤/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오염원은 생활하수가 36%, 질소·인 포함된 농업배수가 35%, 축산폐수가 29%를 차지하고 있다(순천시, 1998).

2. 친환경농업 실태분석

1) 표본농가의 일반적 특성

주암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98년 환경농업 실천농가 조사시 파

약된 농가,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가, 환경농산물표시사용 신고 농가 등 75농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04년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사표는 제외하였다.

〈표 1〉 표본농가의 지역별 분포

조사지역	승주	주암	송광	외서	상사(낙안)	계
농 가(호)	3	23	23	9	17	75

표본농가의 연령별 분포는 39세 이하가 1.3%에 불과하며, 40~49세는 26.7%, 50~59세는 40.0%, 그리고 60세 이상이 32.0%로, 이는 곧 우리 농촌의 노령화 현상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친환경농업도 노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초등졸이 34.7%이며, 중졸이 28.0%, 고졸이 32.0%, 그리고 대졸이 5.3%에 불과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학력은 대체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종교에 있어서의 특성은 기독교가 13.3%, 불교가 16.0%, 무종교가 68.0%로 나타나 특정 종교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표본농가의 일반적 사항

연 령 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농 가(호)	1	20	30	24	75
구성비(%)	1.3	26.7	40.0	32.0	100
학 령 별	초등졸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농 가(호)	26	21	24	4	75
구성비(%)	34.7	28.0	32.0	5.3	100
종 교 별	기독교	불 교	기타 종교	무종교	
농 가(호)	10	12	2	51	75
구성비(%)	13.3	16.0	2.7	68.0	100

일반적인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85.3%이며, 친환경농업경력은 3~5년이 45.3%, 6~10년이 25.3%로서 친환경농업의 시행기간은 대부분 초기단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농가에 대한 기술과 자금지원이 친환경농업육성의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표 3〉 표본농가의 영농경력 분포

	2년 이하	3~5년	6~10년	11~20년	20년 이상	계
일반 영농(호)	0	1	3	7	64	75
구 성 비(%)	0	1.3	4.0	9.3	85.3	100
친환경농업(호)	20	34	19	1	1	75
구 성 비(%)	26.7	45.3	25.3	1.3	1.3	100

친환경 농산물 재배규모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 2,000평 이내로 그 비중 65.4%에 달하고, 2,001~3,000평이 17.3%, 3,001평 이상이 17.4%에 불과하여, 주로 300평~2,000평의 규모를 가진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 친환경 농산물 재배규모별 분포

구 분	300평 이하	301~1000평	1001~2000평	2001~3000평	3001~4000평	4001~5000평	5000평 이상	계
농 가(호)	14	14	21	13	2	2	9	75
구성비(%)	18.7	18.7	28.0	17.3	2.7	2.7	12.0	100

친환경농업 주 작목은 배가 18.3%로 가장 많으나 주암댐 주변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비료와 농약의 시비량이 적고 비교적 친환경농업에 수월한 산나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친환경농업 주 작목별 분포

구 분	벼	배	고추	취나물	더덕·도라지	동충하초	딸기	표고버섯	기타	계
농 가(호)	13	19	9	11	16	7	8	8	13	104
구성비(%)	12.5	18.3	8.7	10.6	15.4	6.7	7.7	7.7	12.5	100

주 : 표본농가는 75호이나 중복 응답을 한 농가가 있어 104호가 됨.

2) 친환경농업의 수익성과 영농형태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시행할 경우 농업자재의 투입이 감소함으로써 사업초기에는 수확량 감수가 예상된다. 물론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나 생산량이 일반농가에 비해 대략 3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업초기의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기간의 전환기 환경농법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단위당 생산량을 일반재배와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재배와 친환경농업 형태별로 대비하여야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시행초기인데다 대부분 저농약재배이므로 일반재배와 크게 대비가 되지 않으며, 특히 벼의 경우 품종별로 내병성 등의 정도차이가 있어 저농약재배로서의 일반재배와 대비에는 별 의미가 없었다. 다만 면담조사 결과 대부분 일반재배와 동일 수준정도라고 하나, 무농약재배와 유기재배의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농법에 비해 친환경농법의 수익성에 관한 응답 내용을 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77.3%가 일반농법에 비해 환경농법의 수익성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친환경농업 본래의 취지인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이라는 외부효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본농가들의 친환경농업 기술수준은 77.3%의 농가가 일반농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해 지력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본농가들이 주로 저농약재배 농가인 것을 감안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유기재배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즉, 일반농법에서의 화학비료 및 농약살포 대신에 유기물 등을 이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의 천적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과 반복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표 6> 일반농업 대비 친환경농업의 수익성과 기술수준 비교

수 익 성			기 술 수 준		
구 분	농 가(호)	구성비(%)	구 분	농 가(호)	구성비(%)
매우 높다	2	2.6	더 높다	58	77.3
높은 편이다	39	52.0	비슷하다	14	18.7
비슷하다	17	22.7	더 낮다	3	4.0
낮은 편이다	15	20.0	잘 모르겠다	0	0
매우 낮다	2	2.6			
계	75	100	계	75	100

표본농가의 친환경농업 영농형태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주암댐 주변지역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무농약재배가 대다수인 72.5%를 차지하고 있고 농약을 일반재배의 1/2 이하로 사용하는 저농약재배가 23.5%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형태중 유기재배가 저

조한 이유는 아직 시행초기로서 유기재배로의 전환단계라고 여겨지며, 궁극적 목표인 완전한 상태의 유기재배가 정착되기까지는 저농약재배, 무농약재배의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표 7〉 친환경농업 영농형태

구 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계
농 가(호)	4	74	24	102
구 성 비(%)	3.9	72.5	23.5	100

주 : 표본농가는 75호이나 중복 응답을 한 농가가 있어 102호가 됨.

또한 친환경농업은 값이 싼 화학비료와 농약 대신 값비싼 생산요소인 노동력으로의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은 제초작업, 퇴비제조, 수확, 병해충방제 순이다. 따라서 제초작업에서 노동력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가볍고 조작성이 용이하며 가격도 저렴한 제초기를 공급하여 점차 여성화,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노동력에 대처할 필요와 함께 잡초제거를 위한 기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병해충 예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퇴비 제조작업의 노동력 부족은 퇴비 제조기의 확대 보급이나 혐기성 발효효소제의 확대 보급 등으로 제조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줄여야 한다.

〈표 8〉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순위

구 분	퇴비제조	제초작업	경운, 파종, 이식	병해충방제	수 확	선별, 포장, 수송
순 위	2	1	6	4	3	5

3) 가격결정 및 유통방식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본농가의 가격 결정방식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농산물의 가격에 비해 20~30% 높은 수준으로”가 40%, “계약가격으로 거래”가 32.0%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댐 주변의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육안으로 외관, 크기, 광택, 색깔 등이 다소 떨어진데다 농산물의 품위규격에는 안전성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의 등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품

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농산물보다 생산비가 많이 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이 다소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가치를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가격 결정 및 대금결제 방식

가 격 결 정 방 식	농가(호)	구성비(%)	대 금 결 제 방 식	농가(호)	구성비(%)
가격= 생산비 + a	3	4.0	소비자가 선급금 지급	2	2.7
소비자와 협상해서 결정	13	17.3	물품과 함께 수수	20	26.7
일반농산물과 같은 수준	5	6.7	물품 인도 후 5일 이내	5	6.7
계약가격으로 거래	24	32.0	물품 인도 후 5일~10일 이내	44	58.7
일반 농산물의 가격에 20~30% 높은 수준	30	40.0	기 타	4	5.3
계	75	100	계	75	100

대금 결제방식은 주로 “물품 인도 후 5일~10일 이내(58.7%)”와 “물품과 함께 수수(26.7%)”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조사지역이 다품목, 소량생산인데다 고정판매처가 없이 일반시장에 출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 결정 및 대금결제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김호, 1993).

첫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 결정기구가 없다. 친환경 농산물가격은 그것을 취급하는 소비자단체가 각각의 방식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재배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품목, 심지어 동일한 산지임에도 가격이 각각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친환경 농산물은 소품목에 소량 생산되고 계절적으로 생산되어 연중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농가가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지역을 단지화 하여 주년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농가별 과잉, 과소 생산의 전체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한 유통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의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연중 고정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공급과 수요의 양 측면에서 역기능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 즉, 일반농산물과의 대비가격이 연중 변동하게 되어 일반농산물 가격이 친환경 농산물 가격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초과 수요가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안전성 등 품질차이에 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일반농산물과의 품질차이를 명확히 밝혀 그것을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술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직거래 운동 및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요구에 따라서 상당히 그 단계가 축소되어 있다. 표본농가의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방식은 52.07%가 직거래로, 계약납품이 32.0%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친환경 농산물이 직거래 또는 독자적인 차별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방식

구 분	직거래	일반시장 판매	계약납품	기타	계
농 가(호)	39	7	24	5	75
구성비(%)	52.0	9.3	32.0	6.7	100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량이 계절별로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품의 크기 및 색깔 등 외관은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급불균형으로 판로가 막힌 경우나, 기술과 경험부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 일반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천경력이 적은 생산자의 경우는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 표본농가의 44.0%가 낮은 가격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포장 문제와 운반 문제가 각각 14.7%와 18.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판매처 확보와 함께 적정가격유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표 11〉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 애로사항/문제점

구 분	낮은 가격	품질하자	계약파기	소포장	운반	반품	기타	계
농 가(호)	33	12	2	11	14	1	2	75
구성비(%)	44.0	16.0	2.7	14.7	18.7	1.3	2.7	100

이외에도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유통상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수요자가 친환경 농산물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비싸다는 선입관으로 소비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생산지역의 지역적 분산과 수송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소량생산으로 인해 수송비의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품목 생산·수송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생산지를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

4) 품질보증방법과 전망

농약과 화학비료 시용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친환경농업만의 별도 문제가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와 살포시기, 살포횟수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농업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가 농약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서 일반농산물과 품질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농산물과 유통과정에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표 12>에 따르면 표본농가의 품질보증방법은 “국가기관에 친환경 농산물표시사용 신고(49.3%)”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거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44.0%)”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표시사용 신고 및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물음에서는 76.0%가 잘 된 제도라고 응답해 이 제도가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12〉 친환경 농산물 품질보증방법과 인증제도에 관한 견해

품질보증방법	농가 (호)	구성비 (%)	인증제도	농가 (호)	구성비 (%)
국가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 농산물표시사용 신고	37	49.3	잘 된 제도이다	57	76.0
소비자(또는 소비자단체)가 직접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4	5.3	그저 그렇다	16	21.3
가입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에서검사	1	1.3	잘 못된 제도이다	2	2.7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함	33	44.0	모르겠다	0	0
계	75	100	계	75	100

한편, 친환경농업 실천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동력 부족과 병해충방제(42.6%)”이며, 그 다음이 “판로(거래처 확보) 문제(17.3%)”, “생산량 감소(12.0%)”순이었으며, “정부지원이 낮음”은 한 농가만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안고서라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만한 특별한 유인요인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애로사항에 대한 생산자의 문제해결 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표 13〉 친환경농업 실천시 애로사항

구 분	농 가(호)	구성비(%)
주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음	2	2.7
노동력 부족	16	21.3
생산량 감소	9	12.0
병해충 방제	16	21.3
환경농법 재배기술 부족	8	10.7
환경농법 자재가 비쌘	3	4.0
외관상 상품성 저하	1	1.3
판로(거래처 확보)문제	13	17.3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	6	8.0
정부지원이 낮음	1	1.3
계	75	100

위와 같은 친환경농업 실천의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전망을 묻는 물음에서 96.0%가 ‘매우 밝다’와 ‘밝은 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표 14〉 친환경농업의 전망

구 분	매우 밝다	밝은 편이다	어둡다	매우 어둡다	잘 모르겠다	계
농가(호)	30	42	2	1	0	75
구성비(%)	40.0	56.0	2.7	1.3	0	100

Ⅲ. 친환경농업 발전방안

친환경농업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속에서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미래농업의 방향이요, 세계적 조류이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개막에 따라 독자적인 우리 농업의 활로는 친환경농업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목적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경제성 확보, 환경의 보전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건강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이다. 아울러 인류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동시에 후 세대를 위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토지와 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과 생산력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주암댐 주변지역 농경지에서 뿌려진 화학비료와 농약의 상당량이 댐으로 흘러들고 있어 이 지역 친환경농업 확대가 가장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주암댐을 살리기 위해서는 댐 주변지역 농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주암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 개발목표는 환경보존 특히 수질보전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나아가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며, 친환경농업단지를 도시민에게 개방하여 도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1.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작부체계 개편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노동력과 토지를 비롯한 많은 생산요소를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 이전시켰다. 특히 댐 주변지역의 인구감소는 농업생산기반의 마비와 맞물려 한계농지의 경작포기면적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주암댐 건설과 함께 집단이주로 가옥과 농사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경작이 포기된 농지는 토양침식²⁾이 일어나 황폐화 되고, 이는 다시 쓰레기 투기 등 농업 외부로부터의 작용으로 농업환경과 농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

한편, 농경지의 유희화³⁾는 일반적으로 입지조건이 불리하거나 토양의 비옥도가 낮은 농경지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암댐 주변의 경우 수물민들의 집단 이주로 인한 유희 농경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희 농지에는 요즘음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동충하초, 누에분말, 누에엑기스 제조를 위한 누에사육을 위해 뽕나무 등을 식재하여 잠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누에가 농약에는 약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뽕나무 주위 농작물로부터 농약이 비산되지 않았다는 즉, 주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아카시아 및 밤나무단지와 함께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양봉도 권해 볼 만하

2) 토양침식이란 강우와 유출에 의한 토양입자의 유출을 말한다. 유실되는 토양입자는 대부분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표토층이다. 표토란 토양의 지력을 형성하고 있는 유기물 함유층으로서 지표면에서 약 30cm 부분을 말한다.

3) 오호성 외(1993). 「농업과 환경」에 따르면 경지의 유희화 현상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여 1991년에는 6만 8천ha로 매년 약 1만ha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면 2000년대 초에는 전 농경지의 약 10%에 달하는 20만ha가 유희화될 전망이다.

며, 친환경농업이 대체적으로 수월하면서 옛 정취가 물씬 풍기도록 목화, 모시재배단지 조성이나, 매실, 녹차, 버섯류나 미나리, 부추 등 신선엽채류 재배로 특품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미나리 등 친자연형 식물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작물재배가 어려운 습지는 식생정화시설인 갈대밭 등 수질정화습지조성도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에서는 유향 농경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⁴⁾

한편, 농경지의 유향화 못지않게 우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토양침식이다. 경지이용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지표가 작물에 의하여 보호받는 기간이 길었으나 최근에는 맥류재배 면적의 감소 등으로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농지가 방치되어 토양침식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이다.

특히 주암댐 주변의 표고가 높고 경사가 심한 유향 경사지에도 토양환경보전 및 자연경관유지를 위해서 버섯류나 취나물 등 산채류 나 야생화 또는 녹비작물인 자운영 등을 재배하여 더 이상 토양침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운영은 유기물 함량증가와 토양 및 양분 유실방지, 잡초발생 억제, 토양의 물리성 개선은 물론 꽃 만개시 꿀벌의 밀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아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함께 주암댐 주변지역에서의 영농활동은 수자원보호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문제를 고려하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친환경농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합경영 및 합리적인 작부체계 등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복합경영 및 윤작체계는 지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노동력의 배분 및 공동이용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복합경영은 개별농가의 경영 다각화와 지역농업의 개편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농업을 단위로 한 부문간의 결합이 가능할 것이고, 복합경영의 유리성이 지역을 범위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 내에서 물질순환과 지역자원의 유효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암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이 지역단위로 발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역복합화의 유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농가별로 2~3개 품목별 생산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품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주암지역의 경우 단감생산조직과 배생산조직을 통합하고, 주암 3개 딸기작목조직과 3개 고추작목조직, 호박작목조직, 가지작목조직 전체를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다 범위가 넓은 지역농업의 형태로 조직화가 됨으로써 토지, 시설, 노동

4) 여기에는 이미 시장경제 구조하에서 유향 농경지는 경제성을 상실한 한계농지의 단계를 넘어선 토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력 등이 효율적으로 배분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전 과정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작부체계이다. 즉, 친환경농업의 경영방식은 근대 농업경영이 추구해 온 전문화, 단작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작물을 단작하게 되면 토양의 구조를 악화시켜 지력이 저하된다. 연작을 하게 되면 토양은 토양 미생물상이 단순화되고 그 활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양분의 유효화가 억제되어 뿌리발달이 억제되고 양분흡수가 억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작물 병해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토양 전염성 병해충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리적 장애⁵⁾가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작화와 전문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윤작체계는 작물과 작물관계, 작물과 익충 및 해충의 관계, 작물과 토양성분의 관계, 작물과 병해충의 관계 등이 상호 수평적 및 수직적 작용을 함으로써 지력회복, 병해충 방제 등의 효과를 낸다(정진영 외, 1995). 윤작체계는 작부순서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설채소 재배지가 그렇듯이 주암댐 주변지역도 수년간 단작·연작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재배 지구인 해당지역의 토질, 기후, 지대 등 자연적 요인을 감안하여 주암 딸기, 고추 시설재배 지구는 2-3년 주기로 딸기와 고추를 번갈아 재배해야 하며, 딸기재배의 경우 수박이나 총각무 등을 후작으로 권장해 볼 만하다. 물론 승주지역의 오이, 고추재배지구도 두 작물간 일정주기로 돌려짓기를 해야 하며, 상사, 외서, 송광 오이재배지구도 지역특품인 딸기, 고추, 가지 등과 작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친환경농업 채소의 윤작체계는 선충 등을 방지하고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농약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윤작 못지않게 혼작, 간작, 두과작물 재배 등을 통하여 병해충의 만연을 방지하는 기술도 중요시되고 있다. 기존의 관행농법으로 농업을 해오던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친환경농업 실천의 정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최소한 3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주암댐 주변지역 재배작물인 딸기, 오이, 고추 등 1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전환기 과정을 거쳐 3년이면 유기농업에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단감, 배, 포도 등 다년생 과수의 경우에는 뿌리가 뻗어 가는 깊이 1m 이상의 경토층을 완전히 개량시켜 주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6년의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송광

5) 선충에 의한 농작물피해는 일반적으로 생육지연, 마름병, 미량요소결핍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다른 병원균과 복합 감염되었을 때 그 피해가 증가한다. 이러한 선충은 전세계적으로 수만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물에 피해를 주는 선충은 약 1,500여종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작물의 대표적인 선충피해는 주로 단일작목을 연작하고 있는 주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경북 성주지역의 참외, 충북 괴산지역의 고추, 충남 조치원지역의 당근 또 충북 옥천, 전남 담양, 경북 고령, 경남 진양 등 지역의 딸기잎 선충이 있다(홍살림 연구모임, 1993, pp. 9~10).

지역의 직접지불제 벼농사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외서지역의 무농약 재배 쌀 및 송광지역에서 생산되는 취나물도 전환기과정을 거쳤으므로 유기재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전환방식의 결정은 투입물을 점차로 줄여 나가는 방식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포장의 일부보다는 전체 포장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주암댐 주변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시작되어 판매가 되었던 초기의 생산품목은 쌀과 상추, 신선초, 작설차, 취나물 등의 엽채류와 고추 등 과채류가 주된 농산물이었다. 상추와 취나물은 다른 품목에 비해 환경농법재배가 용이하며, 연중소비가 가능하고 생식용이기 때문에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다.

친환경농업은 모든 작목이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기술적으로 용이한 작목부터 생산하여 이후 재배가 어려운 작목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암댐 주변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오이, 딸기, 고추, 배, 복숭아, 단감 등도 저농약재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암댐 주변의 안개 적응 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한대로 일반재배 작목은 저농약재배로 전환하고 쌀, 취나물, 작설차 등 기존 친환경 농산물은 조속히 유기재배로 전환함과 동시에 계절적으로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타 작목과 연계하여 재배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관광농업과 연계추진

주암댐 주변은 상수원보호지구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수질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업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관광객이 친환경농업 생산포장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관광농업은 근년에 이르러 산업관광의 일종으로 등장했으며, 농업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레크리에이션의 형태로 개발하여 외래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농장의 대여 혹은 농산물의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한 농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광농업이란 농림수산업의 여건을 활용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촌지역의 과수원, 농장, 목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업생산물이 있는 지역을 찾아와 자연도 즐기고 농업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면서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김만수, 1994).

따라서 관광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동안 농업현장에 체류할 수 있는 시설과 농업생산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는 관광농업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민박촌, 휴양지, 관광농원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수혜가 특정농가에 국한되거나 실적이 유명무실하며, 농업과 연계시키지 못하여 실제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농원의 경우 취급상품이 아주 단조롭고 대부분 편의시설에 치중한 상태이며, 독특한 상품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농원 주체의 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상태다.

이와 함께 농원이 도시민의 휴식처이자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방객을 위한 부대 편의시설의 확충과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이용객의 휴양, 자연학습,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농업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농가소득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암댐 주변 친환경농업을 관광농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여건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가치관의 문제는 바로 친환경농업의 원리와 통한다. 친환경농업의 원리는 기존의 농업이 식량생산을 공급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에 비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며, 물질의 순환을 통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농업이다.

환경문제는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어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양식이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측면이 강하다. 환경문제와 밀접한 농업생산에서도 소비자를 대상화할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에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새로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여 생산과정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농작업을 도우며 기술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작목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생산전환을 요구하면서 저농약농산물도 소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에서는 농업생산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농업생산에 따른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농업생산 결과를 소비자가 책임질 수 있다.

따라서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으며, 가격변동에 따른 생산자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이 제휴방식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생활협동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며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성립된다. 친환경농업은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지지 속에서 발전되는 측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농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농협 등 생산조직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화작업이 필요하며, 해당 친환경농업 실천 작목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농가에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관광객이 직접 채취토록 하여 수확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또한 인건비만큼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수확기의 노동력 부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과실·작설차·딸기·고추 따기, 고구마·감자 캐기, 취나물 뜯기 및 딸기·느타리버섯 선별 등 선별 및 포장작업 등이 있으며, 특히 송광 장안지역의 밤 재배단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의 지원으로 알밤 줍기 행사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과일 수확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급농산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계절품목이 연중품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농한기의 경우에는 보리밭 밟기, 논두렁 태우기 작업 등이 있겠다.

셋째, 농가에서 먹고 자면서 다양한 영농·문화체험을 하는 ‘팜 스테이(Farm Stay)’를 실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농체험을 하고 승주 작설차 등 친환경농업단지, 인근 미곡처리장이나 농산물가공공장 등을 견학하게 하며, 직접 김치·장 담그기, 전통된장 빚기, 작설차 전통제조기법 등 전통음식 만들기를 하거나, 순천만 갯벌, 칠새 도래지 등 생태지역을 둘러보는 등 농촌의 정감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농가가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는 주로 친환경농업포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매농산물은 신선함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친환경농업의 유통,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해결책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관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소비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생산조직과 농협의 긴밀한 협조하에 농협이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도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개선

이미 조사지역의 특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아직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많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판로확보나 가격차별화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통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유통, 수요측면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별은 일반소비자들이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량을 공신력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또는 친환경 농산물표시사용 신고제도를 활용토록 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가격결정의 경우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나, 생산농가의 시장교섭력이 약한 것을 감안하여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표준계약제도를 개발 보급하고 생산자단체가 농가를 대신하여 계약하는 체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암댐 주변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현재 친환경 농산물로서 차별화 되지 못하고 일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화된 시장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영농후계자 등 농민대표나 농협 등 주관으로 주변 관광지인 송광사, 선암사, 낙안 민속촌 및 고속도로 주암 휴게소에 지역특산품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가 참여하는 친환경 농산물판매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친환경 농산물이 갖는 특수성을 관광농업과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도시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4.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체계 강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득의 지지는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판매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환경보전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득지지는 관행농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사회적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설득력도 있다.

무릇 모든 현실의 정책들은 국민 전체의 후생증진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지만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똑같은 정도의 후생증진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이란 거의 없다.⁶⁾ 따라서 어떤 정책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일부 집단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나머지 집단에게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보상의 원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업 생산질서가 환경보전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잠재적인 후생증진에 바람직한 생산질서가 된다면 농업생산자의 소득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6) 예컨대 정부가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면 값싼 전기와 식수의 공급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자연경관의 상실, 경지의 상실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계층이 생기게 된다.

또한 관련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동안 수확량 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고, 농가단위 경영성과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주암댐 주변지역인 송주, 송광 일부농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및 품목은 물론 지원금액도 다양화해야 하며, 관광농업 육성 및 민속사업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보상재원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수도요금에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되며,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투자에 대한 재정 보조나 저금리 중장기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그리고 농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득보조, 농업재해보험제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주암댐 주변지역은 안개 등 여러 가지 제약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친환경농업 시행초기의 수확량 감소로 고추, 딸기, 오이, 단감, 배 등 재배농가는 막상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유기영농을 지원하듯이 이와 유사한 법률을 주암호에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환경보전차원에서 현금지급 외에도 유기질비료, 생물농약, 제초기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여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효퇴비를 제조하는 데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큰 단점이며, 이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 퇴비제조를 들고 있다. 현재 가까운 별랑농협에서도 발효퇴비를 제조 공급하고 있으나, 주암면에도 발효퇴비장을 설치하여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을 발효퇴비로 제조하여 인근 송주, 송광, 화서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노동력 이외에도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주암댐 주변지역은 경지가 협소하고 산간지 중심으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앞으로 소비성향과 특품생산이라는 측면과 자연이 숨쉬는 산과 맑은 물 등의 부존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므로 이를 잘 이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생활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주암댐 주변 주민들은 물론 이 지역 농가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 하고 영농종사에 많은 고충만 뒤따르고 있다. 또한 인공적인 대형 다목적 댐이 축조되어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수몰되고 농민들이 이주하였으며, 댐 건설과 같은 지역변화에 의한 국지 기상변화나 그에 따른 지역농업 및 주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의하여 「수질보전」이라는 대명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주암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관광농업, 댐 주변 농가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주암댐 주변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암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농가의 친환경농업 영농형태는 무농약재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에 관한 물음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반농법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습득방법은 상당수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친환경농업에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은 제초작업, 퇴비제조, 병해충방제 순 이었고, 조사농가의 품질보증방법은 국가기관에 친환경 농산물표시사용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거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품질인증을 선호하면서도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방식은 대부분 직거래와 계약납품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가격결정방식도 일반농산물의 가격보다 20~30%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방식도 물품인도 후 5일에서 10일 이내의 형식을 택하고 있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동력 부족과 병해충 방제, 판로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업의 계속여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친환경농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암댐 주변지역에서의 친환경농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암댐 주변지역에서의 영농활동은 수자원보호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문제를 고려하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암댐 주변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작부체계와 친환경농업의 복합경영 등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주암댐 주변지역의 안개 적응 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일반재배 작목은 저농약 재배로 전환하고, 기존 친환경 농산물은 조속히 유기재배로 전환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댐 주변 유휴 농지에도 토양환경보전 및 자연경관유지를 위해 미나리 등 친자연형 식물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가격차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생산, 유통, 수

요측면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인증 또는 친환경 농산물표시사용 신고제도를 활용하고, 송광사 등 관광지에 친환경 농산물판매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주암댐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여 생산과정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농작업을 도와줌으로써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장소를 제공하여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 농외소득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논문접수일 : 2004. 10. 20. 최종논문접수일 : 2004. 12. 8.]

참 고 문 헌

1. 김만수. 1994. 관광농업을 통한 충주호 지역 농가소득증대방안.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 김 호. 1993.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실태와 유통계열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3. 농림부. 1999. 친환경농업육성정책.
4. 농정연구포럼. 1997.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실태와 정책과제.
5. 농협중앙회. 1995.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계획.
6. 서종혁 외. 1992.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와 장기발전방향. KREI.
7. 순천시. 1996. 순천농업발전계획.
8. _____. 1998. 환경백서.
9. 이기웅. 1995. 유기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방안. 순천대논문집 제14집.
10. 정진영 외. 1995. 「지금 왜 환경보전형농업인가」.
11. 황병순. 1996.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보전형농업 개선방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